



:: 일본에서 온 편지 ::

:: 빛이 되리라::

어머니의 기도

서울교회 권사님의 아드님이 일본에 유학을 와서 우리 교회 근처에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아파트에 살면서 우선 일러부터 배우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오자마자 당장은 일어가 통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택배회사 분류 부서에서 모집을 하길래 갔는데, 그 형제님이 솜씨가 없는 데다가 말 때문에 자신이 없어 해서 제가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러 같이 다녔습니다.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며칠이지만 막노동을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게 돼서 그 후로 외국에서 온 일하며 공부하는 유학생을 보면 뭐라도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열심히 일해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하게 되자 학교 다니면서도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일하며 공부하며 고생 끝에 일해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공부해서 작년에 졸업하고 한국에 나갔는데, 처음

에는 정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곳에 취직이 되었다고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회사가 일본과 관계가 있어서 일어 통역사로 발탁되어 정식 사원이 되었고, 일어 통역사 자격으로 일본에 회사 분들과 함께 다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는지 그저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렸습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잘되기까지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저는 잘 압니다. 한 번씩 일본에 오셔도 새벽기도를 꼭 나오셨고, 새벽 5시부터 기도인데 저보다 더 먼저 나오실 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한번은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집에서 만든 청국장이라 맛있다고 저를 주신다고 전철로 한 시간도 넘는 먼 거리를 일 마치고 밀리는 시간이라 전철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아픈 다리를 절뚝절뚝 무거운 것을 들고 오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은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잘 부탁드려요.”라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소리처럼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저에게 감사하다며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건 오히려 저인데... “이런 어머니의 애통하며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이 아들이 잘된 것입니다.”라고 했더니 그 형제님의 형님도 그렇게 생각한대며, “목사님 덕분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니 다시 벌떡 일어나 일할 에너지를 얻은 듯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존재로 어머니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마음을 생각하면서 남자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모두의 어머니가 되어서 서로 위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은 아마도 천국에서 기뻐 춤추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하라. 감사를 잊지 말라.’고 주신 감사 주간을 보내면서 주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저는 자신감 없고 심하게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증명사진을 보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먼저 손을 들고 발표해본 적이 없었고, 어쩌다 선생님께서 말을 시키면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을 글썽이고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처음 반장 선거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천한 친구마저 저를 뽑지 않아서 0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한 마음조차 느끼지 못한 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난 지 2년쯤 되었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하루하루를 사셨는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녀를 향한 기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머니께서 등곶길에 나서는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편으로 시작된 기도는 신명이 28장으로 이어지고,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가 보호하게 하시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축복해주시는 기도를 그대로 하신 뒤, “선생님의 사랑의 대상, 친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꼭 덧붙이며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4학년 2학기,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당차게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눅이 앞을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반장 할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많으니, 다른 친구들을 뽑아주세요.”라고 말하고 도망치듯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반장 후보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선생님은 저를 그대로 후보에 둔 채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개표 결과, 제가 반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투표용지에 저조차도 제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놀랍게도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존감 낮고 솜씨 없는 저에게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기회와 특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친구들이 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제가 부족한 만큼 늘 좋은 마음으로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은 때에 부각되어 주목받고, 부족한 모습은 모두가 관대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기한 일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아이가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주신 것이지요. 덕분에 스승의 날이 되면, 어머니는 1일 교사로 초청되어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위인들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간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신문을 통해 기록했던 저의 이야기 뒤에는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으며, 이렇게 글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까지도 어머니의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삿2:8~15). 한국교회의 위기라면서 이 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외치시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셨고, 그 기도하신 말씀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부모님들은 기도의 능력을 몸소 체험함과 동시에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그 믿음을 물려받은 다음 세대 또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멋진 추억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가정, 기업, 교회,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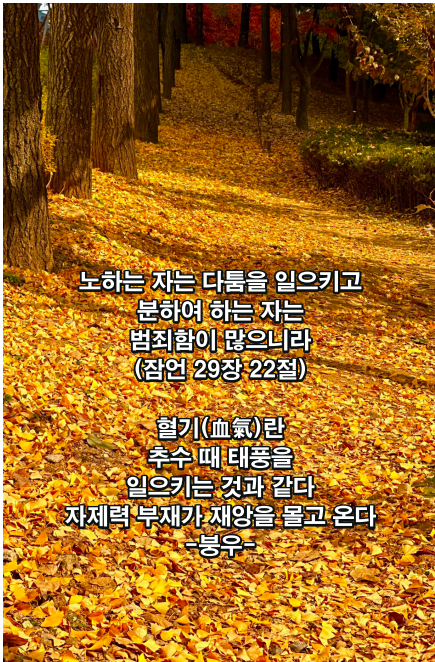
정명관

v-777@naver.com

최고의 걸작품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일일 것이다. 조립식 프라모델(PLA-MODEL)을 만들거나 큰 퍼즐을 완성했을 때, 또는 매우 어려운 작품을 자신의 힘으로 마무리했을 때 완성된 작품을 보며 스스로 뿌듯해한 일 말이다. 기쁘고 벅찬 마음에, ‘와 잘 만들었다. 너무 보기 좋다. 진짜 최고다.’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도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다. 얼마 전 경험한 일이다. 운동 차 아침에 혼자 공원을 걸었다. 공기도 깨끗하고 단풍도 이쁘게 들어 아침 햇살이 비치는 공원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지?’ 하는 생각을 하다 창세기 1장 말씀이 떠올랐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후에 얼마나 잘 만들고 그 모습이 멋졌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좋아하시며 감탄하셨을까. 그냥 ‘좋았더라’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실 정도니 말이다. 그리고 ‘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도 스스로 감탄한 멋진 작품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비가 오고 강이 흐르고 폭포를 만들고 바다를 이루고, 온갖 동식물이 스스로 움직이고 숲과 나무가 산소를 배출하고 새가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이 걸작품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이 아름답고 놀라워도 우리와 같은 사람만 할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서도 최고의 걸작품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런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인 우리가 실망, 좌절, 낙담에 깊이 빠져 있으면 되겠는가? 어떤 일에도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자. 잠시 넘어졌다면 박차고 다시 일어나자. 그럴 때 우릴 지으신 하나님이 흐뭇하게 우릴 바라보시며 더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장명훈 집사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11월 27일 (제1177호)

주일예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순종(順從)

중국에 나가 있는 어윤석 선교사의 아들 어선웅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고 있는 자원하여 주의 종의 길을 걷겠다고 한다. 그는 내게 “그런데요, 제가 세상 경험이 너무 없는데 이것이 목회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요?” 했다. 나는 “세상 경험이 많으면 그걸 빼내느라 고생한다. 모세나 바울이 그랬고, 나도 그랬다. 그러나 사무엘을 보라. 그는 세상 경험이 전무했기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네 생각을 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권면해줬다. 또 그는 “목사님,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의 목사님이 38년 전의 목사님께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라고 물었다. 처음 접하는 질문이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질문이라 나는 생각했다. 나는 “목회 성공의 비결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내 목회 38년, 다른 방법은 모른다.”는 나의 잠언을 그에게 보내줬다. 그는 이것을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겠다고 답했다. 나는 38년을 순종하며 왔다. 내가 깨달은 것은 순종이 가장 쉬운 길이고, 평안한 길이라는 것이다.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면 된다. ‘해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면 된다. 너무 쉽지는 않겠다. 어느 제자처럼 스승이 당근을 거꾸로 심으라고 하면 거꾸로 심으면 된다. 굳이 알량한 내 지식을 동원하며 반기를 들 필요가 없다. 당근이 나고 안 나고는 스승이 책임지실 테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깐 힘든 거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깐 잘 안되고, 실패하는 거다. 어선웅에게 하나님께 ‘네 생각을 빼라.’고 하셨단다. 그렇다, 네 생각을 빼내라. 네 지식을, 네 경험을 빼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해가 되면 순종할 텐데.’ 하는가? 아브라함이 백 세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겠는가. No! 그냥 순종했다. 내 경험으로는 선(先) 순종, 후(後) 이해다.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게 된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땀이 생긴다.’고 했다.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 될까? 생각해보라.

가자! 기도의 동산으로!

추계산상집회가 드디어 이번 주, 11월 28일(월)부터 12월 1일(목) 오전까지 3박 4일간 전라남도 장성에 위치한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또 2023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성의 집점 및 충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는 한 해가 되자!’고 외치며 시작한 2022년이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항상 연말은 우리에게 아쉬움과 때늦은 후회를 주기 마련이지만, 이번 추계산상집회는 그

기로 톡톡 치며 바른길로 인도해줄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팔을 불어주는 목사님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들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그 앞에 장애물은 없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날린 그가 마지막으로 귀향을 선택하고 아버지 집의 종이 되어도 좋으니 품꾼으로 받아달라 간청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것처럼(마9:20),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른 것처럼(눅19:4), 중풍병자 네 친구가 지붕을 뜯은 것처럼(막2:4),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 앞에 부족한 것처럼(막7:28), 모든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통 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란다. 가장 좋은 선택,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한번 죽는 것은 어떤 인생도 피할



런 모든 묵은 감정들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후로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 속에 살아 가고 있다. 잘못된 선택으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선택으로 보상받는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선택한 믿음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길이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 좋은 믿음의 롤모델이 필요하고,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들어섰을 때 지팡이와 막대

랑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탕자가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다. 다 죽을 마당에 무슨 자존심인가? 그는 차라리 아버지 집의 종이 되면 굶어 죽진 않을 것이란 생각에 돌아온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자 지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감동의 장면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서는 정말 면목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으나 그 선택으로 최고의 보상을 받았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삶의 고통 가운데 갈 길을 몰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권면하겠다. 소경 바디매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리 높여 외친 것처럼(막10:47), 12년을 혈투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

수 없는 운명이고,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히9:27). 우리 기도원은 수많은 영혼들이 거둬나고 삶의 동력을 회복해온 영적 산실이다. 이곳을 통하여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해왔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원하는가? 병 고침 받길 원하는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 받기 원하는가? 결단하기 원하는 누구나 기도의 동산으로 달려와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기회는 잡는 자가 임자다.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니 모두가 추계산상집회에 참석하여 인생의 가장 좋은 선택으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강서구 화곡동) 문의: 02-533-9191

구독신청 02) 533-9191



수직적, 수평적 감사를 알라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딤후1:12~17)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사가 씨 뿌리는 대로 나는 법일진대, 감사의 씨를 매일 뿌리니 온 천지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감사는 수직적 감사와 수평적 감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수직적인 감사란 곧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이유요? 너무 많지요. 먼저 저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를 지은 자, 곧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를 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은 신을 너희는 알지 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찌어다”(시100:3~4).

감사는 신뢰를 구축하는 첫 단추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니”(살후2:13).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하게 하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니 그 은혜 백골난망(白骨難忘)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줘도 평생 감사해야 하겠거늘 영명의 길에서 건진신 그분에게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나 바람, 공기, 사계절, 풍성한 곡식, 기업,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 자동차, 집... 당신 노력으로 샀다고요? No!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고전4:7).

더욱이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써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니”(딤후1:12).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저를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시고 능력을 주사 일하게 하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대로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물이 있어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둘째는 수평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내 부모, 형제요, 그다음은 이웃이요, 회사 동료와 상사, 학교의 스승, 교회에서 목사님께, 성도에게 서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뭐 맨날 보는데 굳이...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감사해

보세. 그러면 상대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 환경이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감사해 보세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워.”, “적은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해보세요. 남편에게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애쓰는 것 고마워요.” 해보세요. 자녀에게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건강해서 고맙다.” 해보세요. 사막 같은 가정에 웃음꽃이 필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해보세요. 또 “성도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더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종을 섬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16:3~4)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저는 주일이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안 내위원장들, 안내 권사들에게 ‘고맙다’ 인사합니다. 심지어 88체육관 경비 아저씨

에게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기도원 집회가 열리면 식당 봉사자는 물론 기도원 직원들에게도 ‘고맙다’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더욱 열심히 봉사합니다. 가마를 타는 사람이 가마꾼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가마가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세는 감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딤후3:2). 왜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란 느낄 감, 감동할 감(感), 사례사(謝)로, 내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할 때 상대에게 사례하게 되는데, 그 첫 감동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첫사랑

을 잊어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감사했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의 은혜

를 빼지 않게 느껴 감사했고, 부모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했고, 내 이웃에게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다 만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 잘해주다가 하나만 잘못해줘도 불평하고 화내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계2:4)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울타리 헐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해야죠.

여러분, 감사는 인생의 성장축진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서 문둥병자 열 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명만이 찾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사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눅17:19)고 하셨습니다. 아홉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를 잊은 채 제 길로 갔지만, 이방인 한 사람만이 감사하

여 사례했더니 감동하신 예수님이 그를 육신의 병에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 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감사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지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 빌립보 옥문을 여셨고요. 요한복음 6장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그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먼저 축사(祝謝)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11:41)라고 예수님이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걸으면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하시고, 저를 통해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케 하셨습니다. 그럼요, 감사는 항암제요, 방부제요, 성장촉진제입니다. 감사하면 잘 되고, 걸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50:23).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는 말씀은 감사에 조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감사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질 배가 뜨거운 풀무 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감사한 것처럼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더욱 큰 감사거리를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23:1)’라고 감사했고, 바울 역시 그가 주리고 헐벗고 매 맞으며 세상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으면서도 늘 감사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줘도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감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깨달았을 때, 느꼈을 때 바로 감사해야 합니다. 미루다 보면 때를 놓칩니다. 미루다 보면 부모님이 떠나십니다. 미루다가 서로 원수가 됩니다. 아낄 게 따로 있지요. 감사는 아끼면 씹습니다. 도토리를 그대로 계속 놔두면 결국 도토리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심을 시다. 바로 감사합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납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가,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그 열매가 납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불확실을 이기는 길

한계상황에 직면한 특정 기업의 채권자, 대주주, 혹은 인수자가 새로운 거래처 발굴을 의뢰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주선을 요청하면 본인은 우선적으로 재무상태를 검토하고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한계기업의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減資)까지 병행하며 고정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억지로 버티다가 과국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반면 어떤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은 항상 내실 강화에만 집중하고 아무리 외부 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화되더라도 반대 상황이 되었을 때를 먼저 생각하고 확장은 고려하지 않아 자산이나 매출의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으로 현금흐름도 창출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 전 세계 금융권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 연준의 발표에 집중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경제가 하나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글로벌시장의 공급망을 훼손하여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대세의 의견이지만, 무엇보다 단기간에 급격히 증가된 통화량의 인위적인 확대가 근원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자유롭고 개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고, 기독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를 법으로 금하고 있고, 종교 또한 완전히 개방되어 솔로몬 시대의 말기와 같은 분위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그리고 다양한 위기들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체질은 강화되었고, 특히 대외경쟁력은 강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집중해온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산업은 GDP 성장에 확실한 상승효과를 유발했으나 뿌리 깊게 안착한 변칙적인 금융시스템은 가계와 기업에 과다한 부채를 초래했기 때문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진화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 혹은 집단이 철저히 패망하더라도 당신의 자녀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지난 38년간 변화무쌍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사람의 방법이나 대세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오셨습니다. 도래하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존할 방법은 이전 상황을 예측한 전문가들이나 국가의 위정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하나님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시115:9).

임윤석

:: 세상을 보는 창 ::

하나님의 해독(detox)과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위태롭게 하는 잠재된 독소는 없는가?’ 하고 살피는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독소들을 하나둘 제거하셨다. 그것은 다윗의 공동체가 사울의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해독(detox)하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다윗의 공동체에서 ‘아욕’을 제거하신다. 왜 일까? 아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피바람을 부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넬이 평화의 가면을 쓰고 아욕을 숨기면서 다윗에게 협상했지만, 결국 요압의 손에 죽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공동체에서 ‘자만심’을 제거하셨다. 발이 빠른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을 추격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아브넬의 창에 죽고 만다. 아사헬의 민첩함과 빠른 발이라는 작은 재주가 자만을 불렀고 결국 화를 자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통할 때 내 능력과 열정을 과신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재능, 은사, 시간, 물질을 가지고 자만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처음의 마음을 잘 붙잡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다윗은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두 왕국의 충신-아브넬과 요압을 통해 멈출 줄 모르는 아욕, 자만심을 보았다. 하나님의 해독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의 나라는 아마도 또 다른 사울의 나라가 되었을지 모른다. 그렇다.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의 해독과정이 필요하다. 분노, 원망, 시기, 질투, 거짓말, 수동 공격, 험담 등을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교회 공동체에서 해독하고 계신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면서 사랑의 나라이다. 사랑은 복수를 허락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용서가 우리들 공동체에 가득할 때 전쟁과 싸움은 멈추게 되고,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정금 전도사

매사 여유를 가져라

새벽기도가 끝나고 신학교 수업을 하러 노량진 교육관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좀 늦게 출발하기도 했지만, 유독 평소보다 트래픽이 심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도로 공사까지...

‘일찍 가서 수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조금씩 이동하는데 바로 옆 차선에서는 차들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게 보였다. 차선변경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옆에 보이는 차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빈틈없이 줄줄이 오는 차량으로 인해 조급한 마음은 더해갔다. 조급한 마음이 고조되고 최대치를 찍었을 때, 옆에 빈틈이 생겼다. 그 순간 차선변경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꽁 소리와 함께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차량 부속품들이 눈앞으로 뿜겨 나가는 것이 보였다. ‘분명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변경했는데 왜 이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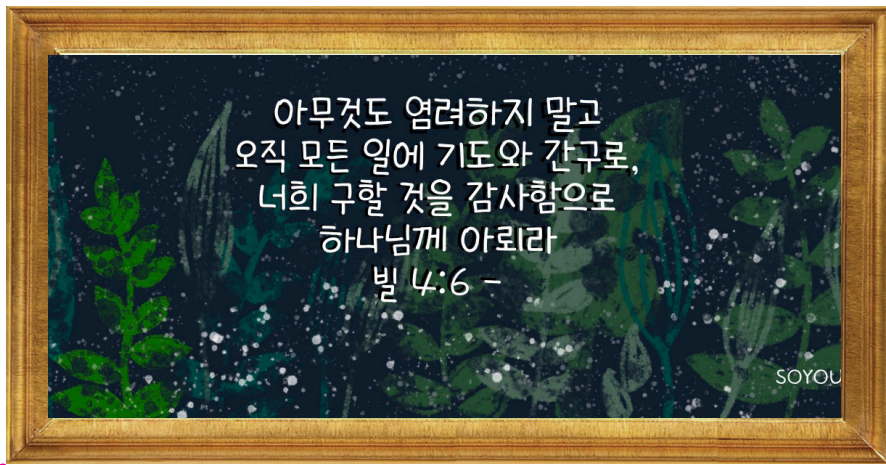
일이 생긴 걸까?’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다. ‘네가 조급해서 그런 거지!’ ‘아차! 내가 조급했구나.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야 했는데.’

‘조급과 무리는 동색이다’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고 “매사 여유를 가져라.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줄 수 있는 마음, 다섯 번 생각할 것 열 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라(마 5:41)”고 하셨던 말씀도 생각났다. 생각만 하면 뭣 하라. 실행을 해야지.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마음이 조급하면 어리석음을 나타낸다’(잠14:29)고 말씀하셨는데...

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서 매사 여유를 가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다. 조급해지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급하지 마! 매사 여유를 가져!”

조급한 마음, 무리하는 마음은 죄다. 매사 여유를 갖자!

이은성 생도



:: 소망의 언덕 ::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노량진 서울교육부서 교육관, 이곳에 들어갈 때마다 여전히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넘치도록 축복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넓고 쾌적한 주차장으로 인해 더 이상 예배 중에 차량을 옮겨야 할까 안절부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하나의 화장실을 가지고 남녀 학생들이 눈치 보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넓고 운치 있는 테라스에서 학생들은 예배 전후에 자유롭게 교제도 나누며 맘껏 뛰어놀고 때론 식사도 합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맘껏 춤추며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배 때마다 찾아오는 고시원 관리인, 학원 강사, 출동을 받아 나온 경찰들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사 한 명을 배치했던 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평일 저녁은 목사님들의 기도회로, 낮에는 신학교 강의실과 교무실로 쓰이니 그 쓰임새에 낭비 됨이 없으니 그저 감사합니다.

저는 교육부서에 허락된 아름다운 교육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맞보

며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목사님의 지시가 있고부터 7년이 넘도록 기도하고 찾았지만 매번 될 듯 될 듯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기대와 간절함이 컸기에 때때로 아쉬운 마음에 눈물을 삼킨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배운 대로 입술로 뿌렸습니다. 때가 되니 주님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교육관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제 대면예배가 가능하지만 체육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될 때면 성도들이 흐트러질까 애절하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총회장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서울 성전을 허락해주실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때가 이뤄질 때까지 잠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전 일이 오히려 추억이 될 정도로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을 저희에게 베풀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때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이현승 목사